

[특별기고문: 자료 소개]

## 잊혀진 정치학자 한치진: 그의 학문세계의 복원을 위한 시도\*

김학준 |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8·15 해방 이후 한국에서 정치학이 성장·발달한 과정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름만 전해진 정치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치진(韓稚振)이다. 그는 미군정기에 (1)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서 ‘민주정치원리’를 강의했으며, (2) 『민주주의원론』 전 3권(남조선과도정부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 1947년 7월)을 출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학준 2013, 88, 118). 그러나 매우 소략한 이 두 사실 이외에는 그의 학문적 배경은 물론이고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사실상 완전히 잊혀졌던 한치진에 대한 정보가 최근 몇 해 사이에 상당히 많이 공개되었다. 『서울대 미주(美州) 동창회보』(2013년 3월 27일) 3쪽에, 미국 콜로라도 볼더(Boulder)에 거주하는 한치진의 딸 한영숙과의 회견을 바탕으로 그를 소개하는 글이 실린 것이다. 이 글을 읽고 필자는 이 글에 실린 몇몇 단서들에 기초해 그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던 과정에, 그의 유족들에 의해 경기도 군포시에 「한치진기념사업회」가 이미 발족되어 있었음을 알게 됐으며 이 사업회가 인터넷에 올린 그에 관한 정보에 접할 수 있었다. 또 『동창회보』에 따르면, 한치진은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원으로 봉직했다. 다행히 이화여자전문학교의 후신인 이화여자대학교는 그의 이력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 자료들에 근거해,

---

\*자료의 수집과 관련해 필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남궁곤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박찬욱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운재 교수 [가나다 순서]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세 분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필자는 정치학자이면서 사회학자였고 동시에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였던 그의 학문세계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 II. 한치진의 학력과 경력

한치진의 본적은 평안남도 용강군 귀성면(貴城面) 석찬리(石贊里)로, 그는 이 본적지에서 1901년 5월 25일에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한학자였으나 가난해 3남 1녀의 막내였던 그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면서 가계를 도왔다. 그러나 워낙 책을 좋아해 산에 올라가서는 책만 읽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빈 지게였다고 한다.

한치진은 16세이던 1917년에 이미 미국에서 유학하던 형 한치관(韓稚觀)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유학해 1921년 6월에 남경 금릉대학 부속중학을 졸업하였다. 한치진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였다. 금릉대학이 기독교 학교였음을 고려할 때, 그는 중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면서 기독교 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다. 이 학교를 마치고 그는 잠시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일을 도왔다. 이 사실은 『동창회보』에 게재된 사진에서 확인된다. 이 사진은 도산 안창호 그리고 해석(海石) 손정도(孫貞道)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 한치진도 동석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한치진은 곧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로 유학했다. 『동창회보』는 그가 동향의 항일독립운동가 도산을 존경해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가 이 대학교로 유학한 배경에는 바로 도산이 있었다. 당시 도산은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국민회를 발족시키고 동포들을 계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때 한치진은 자신의 이름을 Clarence C. Hahn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삼일신보』(三一申報)에 한국의 독립을 역설하는 글들을 썼다. 어느 집의 차고(車庫) 위에 위치한 작은 다락방에서 기거하면서 학교에서 부직을 가진 채 공부하던 그는 1925년 6월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B.A. 학위를 받았으며, 1년 뒤인 1926년 6월에 이 학교에서 M.A. 학위를 받았다.

한치진은 곧바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였다. 그의 공부는 성공적이어서 그는 1928년 6월에 역시 이 학교에서,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Ph.D. 학위를 받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정치학, 사회학, 철학, 심리학, 윤리학 등 인문사회과학의 중요한 학문들을 섭렵했다. 따라서 그를 정치학자라고만 자리매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가 철학과에서 Ph.D.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학위논문이 중국의 종교들을 다룬 “A Criticism of Chinese Ethical Systems: Buddhism, Taoism and Confucianism”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러하지만, 이 시기에 정치학은 철학 및 역사학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리고 그가 해방 이후 정치학과에서 강의했으며 정치학의 주제들에 대해 저술하였기에, 그를 정치학자로 자리매김한다고 해서 부정확하지는 않다.

1928년의 시점에 조선인으로 미국에서 Ph.D. 학위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귀국과 동시에 쉽게 교직을 얻을 수 있었다. 1929년 1월에 서울의 협성신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다. 이 학교는 미국 감리교회 한국선교부를 대표해 헨리 아펜젤러가 1907년에 서대문구 냉천동에 설립했다. 이 아펜젤러는 물론 배재학당을 세운 그 아펜젤러다. 이 학교는 그 이후 감리교신학교로 개명됐으며 1993년부터 감리교신학대학교로 개명된다.

한치진은 이 학교에서 1932년 3월까지 봉직하였다. 이어 그는 1932년 5월에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며 1935년 6월에 이화보육학교 교원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그가 가르친 과목들이 무엇이었는지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이 시기에 그는 『논리학개론』과 『종교개혁사요(宗教改革史要)』 및 『종교철학대계』를 써서 각각 1931년과 1933년 및 1934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철학연구소(哲學硏究社)에서 출판했다. 철학연구소는 사실상 그의 사설 연구소였다. 이 시기에 그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5에서 살았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1938년 4월부터 1939년 초까지 이화여전을 휴직하고 와세다대학에 유학했으며 1939년에 복직했던 것 같다. 이력서에 따르면, 1941년 현재 이화여전에 재직하고 있었다. 그 이후 어느 시점에 그는 일제에 의해 약 1년 동안 투옥됐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그는 1945년 8월 17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시체와 다름없는 몰골로 석방됐는데, 이것은 그가 항일독립운동에 연계됐었음을 의미했다. 이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보훈처는 2007년 8월 15일에 그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다.

8·15해방은 한치진에게 활동영역을 넓혀주었다. 미군정정은 그에게 관직을 제의했으나 사양하고 이화여전에서의 교직에 전념함과 아울러 대중을 상대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해설하는 일에 정력을 쏟았다. 그의 라디오방송은 큰 인기를 일으켰으며, 그로 하여금 『민주주의원론』 전 3권 및 『미국민주주의론』을 출판하게 만들었다. 그는 1950년에는 『심리학』(조선문화연구소)을 출판함으로써 심리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동창회보』와 기념사업회는 1947년 6월에 그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소개

했으나 서울대학교에는 이 소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의 『민주주의원론』 제1권은 표지에서 그를 ‘국립서울대학강사 철학박사’라고 소개했으나 『민주주의원론』 제2권과 제3권이 표지에서 그를 ‘국립서울대학교교수 철학박사’로 소개하고 있음에 비춰, 그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 III. 『민주주의원론』

8·15해방 직후의 시기에 있어서 한치진의 대표적 저술은 역시 『민주주의원론』 전 3권 및 『미국민주주의: 미국의 이상과 문화』(중앙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 1948년 5월)이다.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이 책들이 남조선과도정부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출판됐다는 사실이다. 각종 이데올로기들이 범람하고 갈등하던 시기에 민주주의, 특히 미국민주주의의 장점을 전파하고자 하는 뜻에서 군정청은 이 책들의 발행을 결정했던 것 같다. 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돼 쇄(刷)를 거듭했으며, 그를 정치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이 성공이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를 미워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를 납북하게 만들었다.

이 두 책들 가운데 우선 『민주주의원론』을 살펴기로 한다. 제1권에서, 한치진은 앞 부분에서 국가의 기원을 토머스 홉스와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두고 설명했다. 이어 헤겔과 마르크스의 국가론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부인하는 아나키즘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개인의 자유를 자주 언급함과 아울러 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자유와 보호와 신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치진은 제2권에서 우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전제로 인간과 정치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성장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여기서 그는 영국의 존 로크, 그리고 프랑스의 볼테르 및 장 자크 루소가 제시한 이론들을 설명했으며, 자연법이론을 설명했고, 유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민주주의’를 논하고 ‘세계적 민주주의’를 논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간사회에 있어서 노동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치진은 제3권에서 우선 동양의 정치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민’을 중시하는

‘왕도정치’, 그리고 정전법(井田法)에 나타난 평등사상 등이 동양정치사상의 특징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는 ‘조선민주주의론’을 전개했다. 여기서 그는 조선에서 서양식의 민주주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비판했으며, 조선민족은 서양식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능력을 지녔다고 옹호했다. 제3권의 뒷 부분에서 그는 세계 역사상 나타났던 혁명들, 예컨대, 산업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소련의 공산주의혁명, 중국의 삼민주의혁명 등을 설명했다.

#### IV. 『미국민주주의: 미국의 이상과 문화』

그러면 『미국민주주의』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모두 3부 15장으로 구성되었다.

- 제1부 미국의 기원과 정치론
  - 제1장 미국의 물질적 배경
  - 제2장 미합중국의 기원
  - 제3장 미국독립전쟁
  - 제4장 미국의 통일과 헌법제정
  - 제5장 미국정당정치
- 제2부 미국의 민주사상론
  - 제6장 미국사회사상의 발달
  - 제7장 미국의 정치노동사상
  - 제8장 미국과 공산주의
  - 제9장 미국민의 이상
  - 제10장 미국민주주의론
- 제3부 미국문화론
  - 제11장 미국문화의 특이성
  - 제12장 미국예법론
  - 제13장 미국식 사고법
  - 제14장 미국문명의 비판
  - 제15장 미국문화의 유심철학적(唯心哲學的) 기초

이 책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

국의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를 미화하거나 예찬하지는 않았다.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미국 정치사상의 뿌리를 영국의 존 로크와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에서 찾았으며,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독립선언서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출발점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1) 개인주의, (2) 자유주의, (3) 사유재산제도, (4) 정의에 기초한 법치주의 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와 관련해 (1) 언론의 자유, (2) 집회결사의 자유, (3) 신앙의 자유, 그리고 (4) 자유로운 선거를 초석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어 미국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의회주의와 정당정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이어 미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가려는 노력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이처럼 미국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폭력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은 개인의 자유 및 창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민주적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회와 선거를 통해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평등의 이상에 근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가 말한 ‘민주적 공산주의’는 사실상 ‘민주적 사회주의’와 동일하다. 그런데 그가 왜 굳이 ‘민주적 공산주의’라는 생경한 표현을 썼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민주적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에서 엿보이듯, 저자는 미국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중시하는 상디칼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자본주의체제의 타도를 지향하는 아나키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노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여기서 다시 나타났다고 하겠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폈듯, 한치진은 선구적 철학자요 사회학자였으며 동시에 선구적 정치학자였다. 그의 『민주주의원론』 전 3권과 『미국민주주의』는 그를 정치학자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저술들이었다.

이렇게 그를 정치학자로 자리매김할 때, 그는 해방 이후 한국에서 정치학을 강의한 제1세대에 속한 민병태, 서임수, 신기석, 신도성, 이동화, 이용희, 한태수 [가나다 순서] 등보다 적어도 10~15년 이상 앞섰다. 그뿐만 아니라, 제1세대에 속한 정치학자들이 모두 일본에서 공부했거나 일제강점 아래서의 국내에서 공부했음에 비해, 그는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때 한국의 정치학계에 미국에서 정치학 및 그 인접과학들을 공부해서 학사·석사·박사를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독보적 존재를 상기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강론하기에, 또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학을 강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치학자는 바로 그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선구적이면서 정력적이던 그가 6·25전쟁 직후 만 49세의 나이로 서울의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납북됐고 생사조차 묘연해진 사실은 그의 개인적 불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학계의 손실이었다. 하나의 가정이지만, 그러한 불행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소에 보여주었던 왕성한 학구적 정열로써 한국정치학계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학준. 2013. 『공삼 민병태 교수의 정치학: 해방 이후 한국에서 정치학이 소생·성장·발전한 과정의 맥락에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